5·18 무명열사 신원 41년만에 밝혀졌다

미장일 하러 서울서 온 故 신동남씨 광주역 인근서 총상…치료 중 사망 상무관 안치 과정에서 이름 바뀌어

2002년 검사에서 유가족 못 찾고 행불자 보상신청서 재확인 중 발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5일 오후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무명열사 신원확인 조사결과, '묘지번호4-90'의 주인공이 80년 5월 당시 행방불명됐던 신동남 열사임이 밝혀졌다. 신동남 씨의 유가족이 고인의 묘소에 헌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름 없이 묻혀있던 무명열사의 신원이 41년만에 밝혀졌다. 무명열사는 고(故) 신동남씨로 확인됐다.

15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국립5·18민주묘지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명열사(묘지번호 4-90번)에 안치된 사망자의 유전자와 신동남(1950년 6월 30일생)씨 유족의 유전자 비교결과 동일인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옛 망월동 시립묘지(구묘역)에 '무명'으로 안장됐던 신동남씨 주검은 2002년 7월 국립5·18민주묘지로 이장됐다. 이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일치하는 유가족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1월19일 조사위는 무명열사 묘 5기 중 3기에서 유전자 검사용 뼛조각을 다시 채취했다.

광주시가 보관한 행불자 가족 386명의 유전자와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지만 일치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조사위는 5·18 행불자 보상신청서와 5·18 당시 광주지역 병원 진료기록 등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신씨와 연관성을 찾았다.

이후 유전자 검사 기법인 SNP 기법으로 신씨 유전자와 비교검사를 진행해 형제일 확률이 99.99996%로 확인했다.

신씨은 1980년 미장일을 하기위해 서울에서 3개월 간 광주를 찾았다가 5·18민주화운동을 겪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5월 20일 밤에 기거하던 여인숙(이모씨, 김모 씨 등과 동거)에서 나갔다가 총에 맞아 적십자병원으로 후송됐다.

5월 20일은 광주역에서 제3공수여단이 첫 집단발포를 한 시기이며, 신씨가 머물던 여인숙도 광주역 인근이었다는 점에서 광주역 첫 집단발포에서 신씨가 총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위는 추정하고 있다.

신씨와 같이 지내던 이모씨는 5월 21일께 적십자병원의 간호사로부터 신씨가 수술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 등은 적십자병원으로 찾아가 수술 후 복부에 붕대가 감겨 있던 신씨를 확인했지만,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보니 신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5월 22일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시내 병원의 사망자들을 모두 상무관에 안치하는 과정에서 신씨의 시신도 함께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신씨 시신의 이름이 다른 이름인 이금영씨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금영씨가 생존해 있음이 확인돼 결국 신씨는 신원미상으로 처리돼 41년간 무명열사로 불리게 됐다.

신씨의 유족은 지난 1993년 7월과 1994년 2월 광주시에 행불자 신청을 했지만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사람이 없어 행불자로 인정받지 않았다.

신씨 동생은 이날 "행불자 보상신청에서 떨어진 후 사실상 형을 찾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면서 "이번에 형을 찾아주어 감사할 뿐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월부터 전기요금 오른다 991만가구 2000원 가량

7월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폭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다. 전국의 990만 가구 이상의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2000원 가량 오르게 되는 셈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한 기존 월 4000원의 할인액이 2000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발표에서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제도 개선에 따른 이러한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는데,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몰린다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 할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라 3분기부터 할인액이 축소되는 가구는 991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들 가구에 대한 할인 적용은 2022년 7월에 완전히 폐지된다. /연합뉴스

목포대, 11개 연구과제 선정

목포대학교는 15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 상반기 학술·인문사회사업 및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에서 총 11개 연구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학술·인문사회사업 및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은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역량을 확충하고 대학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와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목포대는 ▲인문사회 신진연구자 지원 2과제(무역학과 유천 교수, 교양학부 이재환 교수) ▲이공기초 기본연구 6과제(약학과 김광준 교수,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김태경 교수, 생명과학과 서승석 교수, 정보보호학과 서재현 교수,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양기철 교수, 패션의류학과 차수정 교수) ▲이공기초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3과제(신소재공학과 강정원 교수, 간호학과 김선경 교수, 토목공학과 이재빈 교수)를 합쳐 총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향후 사업에 선정된 목포대 연구책임자들은 과제별로 1년부터 7년간 총 21억여 원을 지원받아 확장 현실과 모바일 앱 기반 실감형 학습 플랫폼 구축, 국내 연안·하천 측량 고도화 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 리튬-공기 전지용 공기극 개발 등에서 활발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남구 구립도서관, 평일 저녁 10시까지 개방

스마트도서관 3곳 연중무휴

광주시 남구는 평일 퇴근 후 도서관을 찾는 직장인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구립도서관 2곳의 야간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365일 필요할 때마다 책을 대여할 수 있도록 3곳의 스마트도서관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또 주민들이 주말에도 책을 통해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공립 작은도서관 4곳도 개방한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푸른길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의 야간 운영 시간이 오후 6시에서 10시로 4시간 연장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구립도서관별로 각각 2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 야간에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푸른길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의 야간 개관 일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5일과 38일에 불과함에도 야간 시간대 이곳 도서관을 다녀간 주민은 각각 1533명과 293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월동 빅스포 뒤편과 무등시장 내 주차장, 푸른길 공원 남광주농협 맞은편에 위치한 스마트도서관에서는 365일 비대면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대는 새벽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365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3곳의 스마트도서관 이용자는 각각 1435명과 268명, 316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네이버 '미래형 학습시스템 도입' 협약

1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네이버와 미래형 학습시스템 도입을 위해 네이버 웨일 스페이스 플랫폼 지원과 교육청과 학교 요구 사항에 기초한 서비스 개선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네이버 웨일 스페이스는 다양한 웹(web) 기반 서비스들을 웨일 브라우저 상에서 제공하고, 사용자는 웨일 계정 하나로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교사와 학생은 웨일 브라우저에 교육청 통합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다. 교사는 수업 목적에 맞춰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동하고, 학생은 교사와 동일한 수업 환경에 접속해 맞춤형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웨일 스페이스는 웨일 브라우저에 탑재된 실시간 양방향 화상 도구인 웨일온을 지원한다. 웨일온은 학생들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화상도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 한 명이 개설한 수업에 최대 500명이 동시 참여 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기존 전남교수학습지원센터와 네이버 웨일 스페이스 플랫폼을 연동, 전남 교원과 학생·학부모에게 맞춤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22개정교육과정과 검인정교과 도입에 대비해 현장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교사가 직접 개발하고 공유하는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참여형 공유 서비스를 개발, 오는 8월말께 선보일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